

# SUV의 질주...내수 판매 30만대 돌파

국내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량이 11개월 만에 30만대를 돌파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국내 완성차 5사의 SUV 판매대수는 30만 475대로 역대 SUV 최대 판매 기록인 2002년 29만 7594대를 넘어섰다. 최근 캠핑을 비롯한 레저 열풍의 확대도 SUV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신차와 더불어 소형 SUV들이 속속 출시되며 고객 선택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11개월 만에 연간 최대 판매기록을 경신했다는 점도 올해 SUV 돌풍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었다는 점을 방증한다.

SUV 판매 대수는 2002년 29만 7594대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꾸준히 감소해 2008년에는 16만 8520대까지 떨어졌으나 2009년 투싼ix 등 콤팩트 SUV가 본격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하며 22만 4623대로 회복했다. 이후 2012년에는 신형 싼타페 출시와 레저 열풍에 힘입어 25만 262대를 넘어섰고

## 11개월만에 연간 신기록 달성

### 산타페 7만여대 가장 많이 팔려

### 출시 4개월 기아 쏠렌토 인기

지난해 캠핑 열풍을 타고 SUV 시장은 29만 7222대 규모로 커졌다.

올해에도 SUV 인기가 이어지며 11개월 만에 '마(魔)의 30만대' 벽을 넘어서게 된 것이다.

업체별로는 현대차가 올 11월까지 12만 3261대로 가장 많은 SUV를 판매했고 이어 기아차 8만 6379대, 쌍용차 5만 388대, 르노삼성 2만 2997대, 한국GM 1만 7450대 순이었다. 차종별로 보면 싼타페(7만 2097대)와 스포티지R(4만 4229대), 투싼ix(3만 8768대) '삼총사'가 국내 SUV 시장을 견인했고 신형 SUV들의 활약도 꾸준히 이어졌다.

기아차의 신형 쏠렌토는 출시 4개월 만에 1만

8000여대가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르노삼성의 소형 SUV QM3는 올해 1만 4000여대가 팔렸다.

SUV 판매가 늘면서 내수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졌다. 올해 들어 상용차를 제외한 차급별 판매 비중은 SUV가 27.8%로 내수 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중형급 16.9%, 준중형 15.9%, 경형 15.6%, 준대형 10.0%, 미니밴 6.1%, 대형 4.6% 순이었다.

수입차 시장에서도 SUV 판매는 크게 확대되고 있다. 폴크스바겐 티구안이 올해 들어 7061대 팔리며 수입차 베스트셀링카로 떠올랐고 지난달 출시된 닛산의 캐스카이까지 가세해 국내 SUV시장을 더욱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자동차 고객 사이에 더 이상 가격 경쟁 세단을 고집하지 않고 야외 활동에 적합한 SUV나 미니밴을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수입차까지 SUV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SUV 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출시 4개월 만에 1만 8000여대가 팔린 기아차 '올 뉴 쏠렌토'



올해 국내 SUV 중 가장 많이 팔린 현대차 '산타페DM'

## “내차는 내손으로”...수입차 자가정비 부품 판매 급증

### 최근 1개월 전달보다 50% 늘어

### 30대 이하 구매 3배 가까이 증가

수입차 판매가 꾸준히 늘면서 수입차용 DIY(Do It Yourself) 인테리어 상품과 부품도 덩달아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15일 오픈마켓 옥션(www.auction.co.kr)에 따르면 최근 1개월 사이 수입차 부품 판매는 전달 같은 기간보다 50% 늘었다.

연령별 보면 30대 이하 고객의 구매가 3배 가까이(280%) 늘어 젊은 층의 수요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산차보다 비싼 수입차 정비 비용에 부담을 느낀 젊은 층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간단한 부품 교체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수입차 엠블렘을 넣어 별도 제작한 자동차 키.

분석된다. '셀프 정비' 품목 가운데는 벤츠·BMW·아우디 등에 들어가는 '보쉬 메가실버 배터리' 등 주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마모가 잘되는 부품의 판매가 많았다.

실내 인테리어 DIY 용품 가운데서도 수입차용 제품의 판매가 많이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차용 인테리어물품과 트렁크 판매는 각각 15%, 계기판 관련 부품 판매는 20% 늘었다. 수입차를 가진 고객의 경우 열쇠고리를 별도로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급 가죽 열쇠고리나 LED 열쇠고리 등에 수입차 엠블렘을 넣어 만든 제품의 경우 전체 매출의 42%를 '차부심'(차+자부심의 신조어)이 큰 20~30대 젊은 층이 차지했다.

옥션 관계자는 "수입차 판매가 늘어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관련 부자재 판매도 크게 늘었다"며 "특히 DIY가 가능하고 멋을 중시하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테리어 상품과 액세서리 상품의 구매가 두드러지게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내년부터 정부보조금 100만원을 받는 하이브리드카 프리우스

## 에쿠스 5.0 134만원, K7 2.4 프레스티지 36만원 ↓

# 내년부터 개별소비세 1%P 인하 2000cc 이상 대형차 가격 내린다

내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배기량 2000cc 이상 차량은 개별소비세가 현행 6%에서 5%로 1%포인트 낮아진다. 차종별로 많게는 수백만 원씩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전망된다.

개별소비세가 내리면 국내 완성차 가운데 가장 비싼 현대차의 에쿠스 5.0 프레스티지의 가격은 현재 1억 1126만원에서 내년에는 1억 992만원으로 134만원 내려갈 전망이다. 또 그랜저 2.4모던은 3024만원에서 2988만원으로 36만원 인하되고, 제네시스 3.8 프레스티지는 6130만원에서 6056만원으로 74만원 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싼타페 2.2프리미엄도 지금보다 37만원 정도 인하된 3028만원에 살 수 있을 전망이다.

기아차의 K7 2.4 프레스티지와 쏠렌토 2.2 프레스티지의 가격은 현행보다 각각 36만원과 37만원이 내려갈 것으로 추정됐다.

다른 완성차업체들도 가격 인하에 동참한다. 르노삼성은 개별소비세 인하를 반영해 내년부터 SM7의 가격을 평균 32만원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별소비세가 낮아지면 연쇄적으로 교육세·부가

세 인하 효과도 있어 소비자들로서는 그만큼 더싼 가격에 차를 수 있게 된다. 일부 업체들은 내년 세금 인하를 미리 반영해 판촉 행사를 벌이고 있다.

한국GM은 2000cc 이상인 캠터비아와 알페온, 알페온 이어스프트, 카마로 등 4개 모델에 대해 이번 달부터 차량 가격의 1%인 31만~46만원의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차도 최근 출시한 2015년형 그랜저 하이브리드 가격을 개별소비세 인하를 선반영해 기존모델보다 10만원 낮은 3450만원에 책정했다.

인피니티도 이달부터 인기모델인 2015년형 Q50 2.2d 모델의 가격을 40만원, Q50S 하이브리드는 50만원 인하했다.

개별소비세 인하 이외에 내년부터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살 때 1km 주행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7g 이하일 경우 정부 보조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쏘나타(현대차)·프리우스(토요타)·인사이트(혼다)·시빅(혼다)·CT200h(렉서스)·퓨전(포드) 등이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 부동액 붉은빛 띠면 지체없이 교체해야

Q)부동액은 언제 갈아야 하나요? 교체주기가 궁금합니다.

A)사실 부동액의 교체주기는 딱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평소 차량 정비시 부동액 점검을 같이 하면 됩니다.

전문가 의견"부동액은 일반적인 교체주기는 없지만 육안으로 교체시기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동액은 진한 파란색을 띠고 있는데 이 색깔이 상당히 엷어질 경우에는 교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붉은색을 띠고 있는 경우는 지체 없이 교체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 제공>

### 신축원룸 매매

전대정문 2분!  
전대후문 2분!  
신축 4층

룸 12개  
1층점포 1개  
2-3층 룸 10개  
4층주택 1개  
옥탑

월수익 500만  
매가 6억 7천  
(보 4천, 용 1억 5천)

원룸전문취급  
원룸물건 다양임  
(금액 4억~12억)

010-6670-9800

### 상가건물매매 7층 사우나건물

1. 북구 우산동 안보회관 사거리 옆 7층 건물사우나  
대지 96평/건평 570평  
월수익 980만  
주인 직접 운영 시  
2,000만 수익 발생(1년 2억 4천)  
매가 13억(보 1억 5천, 용 5억)

2. 북구 우산동 4층 상가주택 건물  
대지 120평/건평 500평  
월수익 900만, 매가 10억

3. 북구 오룡동 8층 건물  
1층 상가, 삼성전자 앞  
보 2억, 용 15억 오피스텔 58개  
월수익 3,000만, 매가 35억

4. 북구 상가건물 3층  
토지 160평/건물 200평  
월수익 1,200만, 매가 21억

5. 수완지구 상가건물 4층  
(우미아파트 밑)  
월수익 900만, 매가 17억

(주)대신 010-6670-9800, 062-382-5500

### 나주 2층상가 건물매매

나주 삼영동 영강초교 앞 2층 영신중·영산중교교 대덕아파트 앞 건물 135평 1.2층 80평 1층-6칸 2층-2칸 (80평 개인사용가) (분할가능, 주택가능) 월 200만, 용 1억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 8천

### 목포 전원주택 매매

목포시 용해동 전원주택 바닷가 5분, 용해동교회 이리시장 1분 금호타운 아파트 바로 앞 노후주택 적합 대지 310평, 주택 2채 50평 현 무회과 식재 됨, 과수원  
매가 3억 2천  
할인 -> 2억 8천

010-6832-9700

### 상무지구 사무실 상가임대(5층) 학원 운영 하실분

울리모델 시설완비

지하주차장완비 주변주차가능

임대료저렴함 (보 3천 130만)

상무지구 상가 5층 임대 100평

010-6670-9800  
062)382-5500

### 경매교육 상무점·운암점

운암동 문화예술회관 육교앞 현대빌딩 8층 매월 초 개강(금,토)  
☎ 오전 10시~오후 7시  
☎ 오전 10시~오후 2시

기본반 · 고급반  
실전반 · 평생실전반

이제 경매가 대중화 시대 교육화 실천가능

### 경매교육 한국경매학원

상무지구 12월 8일 개강 매주 월요일 개강  
☎ 오전 10시~오후 7시

평생 최고의 스테디반 모집중 (입찰부터 매매까지)

010-6670-9800  
상무점 062)382-5500  
서구 치평동 1233-12번

운암점 062)513-4900  
북구 운암동 434-29번

### (주)대신경매 추천물건

근린시설 · 근린주택

① 서구 화정동 (토 171㎡, 건 501㎡) 감정이 2억 7천 최저가 1억 9천  
② 서구 화정동 (토 372㎡, 건 1255㎡) 감정이 10억 최저가 5억 7천  
③ 동구 동명동 (토 838㎡, 건 2190㎡) 감정이 17억 최저가 11억  
④ 서구 치평동 (토 1599㎡, 건 17380㎡) 감정이 223억 최저가 156억  
⑤ 장성군 삼계면 (토 1068㎡, 건 631㎡) 감정이 2억 5천 최저가 1억 4천  
⑥ 동구 대인동 (토 105㎡, 건 106㎡) 감정이 1억 4천 최저가 1억 4천  
⑦ 남구 백운동 (토 315㎡, 건 635㎡) 감정이 5억 최저가 3억 5천  
⑧ 북구 문흥동 (토 216㎡, 건 353㎡) 감정이 2억 6천 최저가 1억 8천  
⑨ 북구 문흥동 (토 193㎡, 건 338㎡) 감정이 2억 3천 최저가 1억 6천  
⑩ 동구 계림동 (토 445㎡, 건 1558㎡) 감정이 10억 최저가 7억 5천

토지

① 광주 광산구 쌍암동 (토 3974㎡) 감정이 45억 최저가 25억 (상업지역, 최고위치, 오피스텔, 도시형 주택적합)  
② 서구 쌍촌동 쌍촌역 2분 대로면 41억

특수물건(공사중 건물 동구 용산동)

① 동구 용산동 (토 1316㎡) 감정이 16억 2천 최저가 11억 3천  
현재 건물 공사중 중단됨(투자적합)

경매학원 배우실 분 연락요망  
공인중개사 자격증 있으신 분(직원채용)

010-6670-9800, 062)382-5500